

# So Lovely, SLOVENIA

## 사랑해, 슬로베니아



슬로베니아(Slovenia) 스펠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Love'라는 단어가  
매직이처럼 떠오른다. '발칸의 스위스',  
'알프스의 보석', '작은 프라하'.  
슬로베니아를 부르는 애칭만 봐도 이  
작은 나라가 품고 있는 어마어마한  
매력을 짐작할 수 있다. 물안개가  
피어오르는 새벽녘에 에메랄드빛 블레드  
호수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쉬고,  
오후의 햇살이 아늑해질 때쯤 모던하게  
디자인된 류블라나의 골목길을 정처  
없이 거닐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가 있는 마리보르에선 달콤한  
와인 향에 취해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었다. 저물녘 주홍빛으로 물든 피란  
부둣가에 앉아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속 완과 연하의  
가슴 먹먹한 사랑을 떠올렸다.

에디터 심민아 사진 오송근  
취재 협조 콤포스(Kompas) [www.kompas-online.net](http://www.kompas-online.net),  
슬로베니아관광청 [www.slovenia.info](http://www.slovenia.info),  
터키항공 [www.turkishairlines.com](http://www.turkishairlines.com)





01



05



06



02

01 슬로베니아의 서쪽 고리시카브르다 지역에서 만난 와이너리 '브야나'. 이탈리아 접경 지역이자 슬로베니아의 유명 와인 산지다. 언덕마다 포도나무가 뿔뿔하다. 02 포르투이 성에서 내려다본 마을 전경. 프라하의 중세 분위기를 떠오르게 한다. 03 프리소이니크 정상 오르는 길에 만난 양 떼. 사람을 보고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04 기묘한 그림 벽화가 시선을 끄는 고딕 양식의 성 요한 성당. 보힌 호수 동쪽 끝에 있다. 05 울리안 알프스가 전면에 보이는 아스나 호수. 반영이 끝내준다. 06 류블라나의 상징, 메스트니 광장. 로마식 분수를 볼 수 있다. 07 아름다운 말로는 부족한 블레드 호수. 블레드 섬까지 플레트나를 타고 들어갈 수 있다.



03



04



07

01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경 중 하나인 블레드 호수. 알프스 만년설이 흘러내려 생긴 투명한 빙하호가 에메랄드빛을 뿜내며 햇살에 반짝인다. 02 거리에서 만난 이색적인 건축 장식. 03 블레드 성 꼭대기에서 바라본 투명한 블레드 호수. 엽서 속 그림처럼 작고 귀엽다. 04 류블라나의 고즈넉한 건축물. 05 '에메랄드 뷰티'라 불리는 초록빛의 소차 계곡. 06 류블라나에서 가장 아름다운 예술 골목, 크리제브니쉬카 울리차. 07 수많은 보트가 정박한 피란 항구. 꾸미지 않은 모습이 아름답다.



01



05



06



02



03



04



07

# 슬로베니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 4

슬로베니아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경유 도시로 슬쩍 발을 담고 돌아온 게 아쉬워 1년을 꼬박 기다렸다. 지난겨울에 본 공산주의의 그늘은 온데간데없고, 어느새 새치름한 모습의 숙녀가 되어 있었다. 슬로베니아에서 보낸 일주일, 결코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1

## 슬로베니아에서 '알프스'를 위치다

알프스 하면, 십중팔구 스위스를 떠올린다. 알프스 산맥이 슬로베니아에서 시작해 이탈리아와 독일, 스위스를 거쳐 니스 해안에 이르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중 슬로베니아는 알프스 남부 '율리안 알프스'를 품고 있다. 우뚝 솟은 하얀 암봉 사이로 깊고 가파른 협곡이 속살을 드러낸다. 율리안 알프스의 최고봉,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에 있는 보힌 호수에 가면, 눈앞에 당당한 자태의 율리안 알프스가, 뒤로는 늙은 보젤 산이 시선을 빼앗는다. 알프스 산에서 흘러내린 빙하의 눈물이 보힌 호수에 또르르 고여 있다. 석회석 등 각종 미네랄 성분이 섞여 있어 말도 안 되게 예쁜 연초록색을 띤다. 바라만 봐도 치유되는 요상한 능력을 갖고 있다. '에메랄드 뷰티(Emerald Beauty)'라 불리는 소차 계곡도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물빛을 자랑한다. 조물주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물감을 풀어 물길을 만들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었다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알프스가 뿜어내는 초록빛 기운은 슬로베니아를 그린 시티로 만들었다. 곳곳에 공원과 숲이 있어 숨 쉴 때마다 행복하다는 말이 입가에서 떠나지 않는다.

## '사랑' 하나로 스토리텔링하다

슬로베니아어로 '사랑스럽다'는 뜻의 류블라나는 사랑스러움으로 뚝뚝 뚝친 도시다. 류블라나의 상징, 프레세렌 광장에서 민족시인 프란체 프레세렌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다. 프레세렌의 청동상이 광장을 굳건히 지키고 있는데, 그의 시선을 따라가면 살아생전 사랑한 여인, 율리아에게 향해 있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에서도 프레세렌 광장을 배경으로 사랑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핑크빛의 프란체스코 교회에서 오후 6시 정각에 프러포즈를 하면 영원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 전설에 상관없이 이토록 로맨틱하고 아름다운 도시에서 누군가 사랑을 고백하면 어떤 마음도 샘솟을 것 같다.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섬, 블레드 섬 역시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이 호수를 따라 잔잔히 흐른다. 성모 승천 성당까지 이어지는 99개의 계단을 신부를 안고 한 번에 오르면 평생 해로한다는 것. 계단이 문전성시를 이루는 이유이기도 하다.

## 슬로베니언의 건강한 습관

슬로베니언 가이드가 말했다. 진정한 슬로베니언이라면 트리글라브 산을 1번 이상 올라야 한다고. 탐나는 잔 근육과 슬림한 몸매의 비결은 수년간 트레킹과 계곡 수영으로 다져진 것이라고. 해발 2000m가 넘는 고봉으로 둘러싸인 율리안 알프스는 이들에게 뒷산 같은 존재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알프스 능선을 따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트레킹 길을 걷고, 겨울이면 흰 눈으로 뒤덮인 산자락은 그대로 매끈한 슬로프가 된다. 온 가족이 산악자전거를 타고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을 한 바퀴 돌고, 계곡물에 거침없이 몸을 내던지는 모습은 슬로베니아에선 특별한 것 없는 일상이다. 블레드 호수를 바라보며 요가를 즐기는 근사한 일도 오후의 흔한 풍경이다.

4



2

## 유럽의 미니어처

파울로 코엘료의 소설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했다>에 슬로베니아가 등장한다. 주인공 베로니카가 조국인 슬로베니아에 대한 국제적 무관심을 안타까워하며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결심한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황당무계한 자살 이유는 슬로베니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다. 슬로베니아는 전라남북도를 합친 2만 273km<sup>2</sup> 크기로 한반도의 1/11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는 198만여 명에 불과하다. 북쪽엔 오스트리아, 남쪽엔 크로아티아, 동쪽엔 헝가리, 서쪽엔 이탈리아와 국경을 이루고 있어 지리적으로 동유럽과 서유럽 사이에 걸쳐 있다. 이 작은 나라를 두고 '유럽의 미니어처'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스위스 알프스의 대자연, 프라하의 고풍스러운 중세 분위기, 크로아티아의 고대 도시 등 유럽의 온갖 아름다움을 쏙쏙 골라놓은 종합선물세트 같다.



## 류블라나 역사를 말한다

류블라나 성 Ljubljana Castle  
구시가지에서 가장 높은 언덕. 그 끝에 왕관 모양의 근사한 성이 있다. 성 꼭대기에 서면, 도시를 관통하는 류블라나 강과 붉은 지붕이 도열한 구시가가 내려다보인다. 1144

년 건축된 류블라나 성은 15세기 합스부르크 왕국 시절, 오스만의 공격을 막기 위해 재건됐다. 지금의 모습을 갖춘 건 17세기. 과거 요새와 감옥, 병원 등으로 쓰이다 1905년 류블라나 시에서 사들이면서 현재 슬로베니아 역사를 볼 수 있는 전시실과 결혼식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중세 시대 복장을 한 가이드가 함께 다니며 성 곳곳을 소개해주는 '타임머신 가이드투어'도 인기. 360도 파노라마 전망을 카메라에 담을 수 있는 '전망 타워(Viewing Tower)'도 놓치지 말자. 철제 계단을 따라 빙글빙글 올라가면, 종아리가 터질 것 같을 때쯤 머리 위로 시원한 바람이 분다. 사방이 툭 툭 원통형 전망대에서 땀을 식히고 서 있으면, 도시가 미니어처처럼 다가온다. 성을 중심으로 도로가 사방으로 뻗어 있고, 호수를 떠다니는 작은 배와 수풀로 우거진 아르누보풍 건물이 운치를 더한다. 프라하처럼 눈을 현혹할 만큼 화려한 침탑도, 로마처럼 역사 깊은 고대 건축물도 눈에 띄지 않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무언가가 작은 도시에 숨어 있다.

주소 Grajska planota 1, 1000 Ljubljana 전화 +386-1-306-42-30 운영시간 8-11월 09:00-23:00, 12월 10:00-22:00, 1-4월 10:00-20:00, 5-7월 09:00-21:00 입장료 6유로 성+푸니쿨라 8유로, 성+푸니쿨라+가이드투어 12유로, 전망 타워 6유로 홈페이지 www.ljubljanskigrad.si

D  
U  
B  
O  
V  
N  
O  
J  
U  
B  
I  
L  
A  
N  
A

## 류블라나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도시를 꼽으라면, 단연 류블라나다. '사랑하다(Ljubiti)'는 슬라브어에서 유래한 류블라나는 공산주의의 삭막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발 닿는 어디든 사랑이 샘솟는다. 류블라나 성 아래로 류블라나 강이 유유히 흐르고, 중세 시대의 오래된 건축물 사이로 섬세한 아르누보풍 건물이 겹쳐져 있다.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노천카페와 퍼브는 밤에 더욱 근사하고 로맨틱해진다.



## 그리스 신화를 품은 용 다리 즈마이스키 모스트 Zmajski Most

1910년에 건설, 다리 양 끝에 류블라나의 상징인 청동으로 만든 4마리의 용이 장식되어 있다. 입을 크게 벌리고 사람들을 노려보고 있는 거대한 용은 하늘로 비상하듯 힘차게 날갯짓하고 있다. 이 다리에는 예부터 용에 얽힌 전설이 흐른다. 그리스 신화 속 용사인 이아손(Iason)이 사바 강을 거쳐 류블라나 강으로 들어오던 큰 용을 물리쳤다는 것. 그 자리에 류블라나를 세웠다고 한다. 실제 류블라나 시 문장에도 용이 그려져 있는데, 유럽에선 용기와 위대함을 상징한다. 동화 속 도시 같은 분위기는 해 질 무렵 선명하게 드러난다. 용의 다리 끝에서 바라보는 황금빛 류블라나 성 풍광이 매우 로맨틱하다.

찾아가는 법 푸니쿨라 탑승구에서 류블라나 강 방향으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다.

## 예술품 안은 푸줏간 다리 메사르스키 모스트 Mesarski Most

용의 다리에서 트리플 다리 방면으로 100m쯤 걸어가면 '메사르스키 모스트'가 나온다. 1930년에 설계, 2010년에 완공된 신식 다리로, 주변의 석조 다리와 달리 세련되게 디자인됐다. 바닥의 일부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 다리 곳곳엔 프로메테우스, 사티로스 등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을 담은 조각상이 놓여 있고, 난간엔 사랑을 약속하는 자물쇠가 주렁주렁 걸려 있다.



**그림 같은 예술 골목**

**크리제브니쉬카 울리차** Križevniška Ulica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되고 아름다운 거리. 류블라니차 강이 펼쳐지는 메인 도로(Breg)에서 사잇길로 접어들면 그림 같은 작은 정원이 나온다. 과거 슬로베니아 지식인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최근 예술가들이 하나둘 모여들면서 분위기가 180도 달라졌다. 소규모 극장을 중심으로 퍼브와 레스토랑, 부티크 호텔 등이 들어섰고, 빛이 들지 않던 잿빛 골목이 화분과 꽃들로 장식, 화사한 곳으로 거듭났다. 창가에 무심히 올려둔 선인장, 벽을 타고 기어 오르는 담쟁이 넝쿨, 벤치에 새겨진 글귀, 세월에 녹슨 대문 등 어느 것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다. 100m도 안 되는 짧은 골목이지만, 좀체 벗어나기 힘들다. 그림 같은 흰 벤치에 앉아 책을 읽으며 오래도록 머물고 싶어진다. 주소 Križevniška Ulica, 1000 Ljubljana



**패기 넘치는 로마식 분수를 만나다** 메스트니 광장 Mestni Trg

프레세렌 광장을 뒤로하고 구시가지 방향으로 두 블록만 걸어가면, 오벨리스크와 조각상이 어우러진 바로크 양식의 화려한 분수대가 나온다. 류블라니차의 명물 '로바 분수(Robba Fountain)'가 바로 그것. 가만 보니 로마의 나보나 광장에 있는 '베르니니 4대강 분수'와 닮아 있다. 실제로 1751년 이탈리아 조각가 프란체스코 로바(Francesco Robba)가 이 분수를 보고 영감을 받은 것이라고. 역동적인 모습을 한 3명의 거인 조각상이 들고 있는 항아리에서 샘물이 쏟아지는데, 슬로베니아의 사바 강과 크르카 강, 류블라니차 강을 상징한다. 메스트니 광장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성 니콜라스 대성당'도 둘러보자. 초록색의 둥근 돔과 쌍둥이 종탑이 인상적인데, 1996년 교황 바오로 2세 방문을 기념해 만든 청동 문이 볼만하다. 광장의 랜드마크인 시청사 건물도 빼놓을 수 없다. 1484년 재판소로 설립, 1718년에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 시청사 꼭대기엔 바로크 양식의 시계탑이 있다. **찾아가는 법** 류블라니 구시가지 시청사 바로 앞 광장

**류블라니차의 이색 교통수단**



**푸니쿨라** Funicular  
류블라니 성을 오르는 가장 편하고 빠른 방법. 2006년 푸니쿨라가 개통되기 전까지만 해도 성 니콜라스

대성당 뒤 오르막길을 따라 20분을 걸어서 올라갔다. 푸니쿨라를 타면 69.7m 높이의 류블라니 성까지 1분 만에 닿는다. 사면이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어 사진 찍는 재미도 쏠쏠하다. 왕복 요금은 4유로, 10분 간격으로 운행된다. 탑승구는 중앙시장 뒤편.



**리버 크루즈** River Cruise

류블라니 시내를 휘감아 도는 류블라니차 강. 칙칙해 보이는 철제 유람선 가운데 유독 나무 보트가 눈에 띈다. 낙엽송과 오크로 만든 목향 가득한 보트를 타고 류블라니 곳곳을 둘러보자. 한 번에 50명을 태울 수 있는 10m 길이의 보트로, 매시 정각에 출발, 45분간 운항한다. 류블라니 올드타운을 중심으로 프란치스코 성당, 트리플 다리, 메사르스키 다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전화 +386(0)-42-386-945 운영시간 10:00~21:00 가격 1인당 7유로 홈페이지 [www.barka-ljubljana.si](http://www.barka-ljubljana.si)



**떠오르는 루프톱 카페** 네보티치니크 Nebotičnik

류블라니의 스카이라인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망 포인트. 구시가지에 류블라니 성이 있다면, 신시가지엔 이곳이 있다. 10층엔 분위기가 있는 레스토랑이, 11층엔 비트 넘치는 클럽 라운지가, 12층엔 야외 테라스가 있는 카페로 이뤄져 있다. 어디를 선택해도 후회하지 않을 아름다운 뷰를 자랑하지만, 저물녘 황금빛 야경을 감상하고 싶다면 12층 카페를 추천한다.

주소 Štefanova Ulica 1, 1000 Ljubljana 전화 +386-40-233-078 운영시간 09:00~01:00 가격 레몬에이드 2.5유로, 에스프레소 1.5유로



**도시 속 휴식처** 즈베즈다 공원 Zvezda Park

슬로베니아어로 '별'이란 뜻의 즈베즈다. 직사각형 모양의 공원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8개의 길이 나 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별처럼 보인다 하여 이름 붙여졌다. 햇살 좋은 날 잔디밭에 앉아 샌드위치를 먹거나 벤치에 걸터앉아 기타를 치는 젊은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팔각형의 야외 정자, gazebo(가제보)도 공원을 로맨틱하게 물들인다. 공원 옆으로 '콩그레스니 광장(Kongresni Trg)'이 연결되어 있다. 광장 중앙에 서면 류블라니 성이 정면으로 보이고, 남쪽엔 1902년 지어진 류블라니 대학 본관 건물(구 국회의사당)이 있다.

**찾아가는 법** 콩그레스니 광장 바로 옆



**류블라니 쇼핑 거리에서 찾은 'Made in Slovenia'**

구시가지 메스트니 광장(Mestni Trg)에서 스타리 광장(Stari Trg)까지 이어지는 길고 좁은 쇼핑 거리. 보행자 전용 도로로, 메스트니 광장 앞 시청사를 중심으로 크고 작은 숍이 모여 있다.



**슬로베니아 소금의 모든 것**  
**피란스케 솔리네** Piranske Soline

슬로베니아 서쪽, 피란은 최고의 소금 산지로, 람사르 조약의 보호받고 있는 자연 염전을 보유하고 있다. 14세기부터 700년 동안 전통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해왔는데, 초콜릿, 보디 스크럽, 오일, 비누 등 갖가지 소금 제품을 판매한다. 슬

로베니아산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할 뿐 아니라 파라벤, 파라핀, 실리콘, 착색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게 특징이다.

주소 Mestni Trg 8, Ljubljana 전화 +386(0)1-42-50-190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20:00, 토요일 09:00~17:00, 일요일·공휴일 10:00~15:00 가격 소금 70g 4.3유로, 초콜릿 100g 3.9유로 홈페이지 [www.soline.si](http://www.soline.si)



**달콤한 자연의 선물** 허니 하우스 Honey House

슬로베니아의 청정 자연에서 재배된 꿀은 류블라니 여행 시 꼭 사야 할 아이템. 노란색 외관의 허니 하우스는 누가 봐도 꿀 전문점처럼 보인다. 벌꿀 상자와 아기자기한 인형으로 꾸민 쇼윈도는 여행자를 유혹하기 딱 좋다. 블루베리, 코코넛, 오렌지 등 갖가지 과일 잼을 비롯해 꿀로 만든 술, 목 건강에 좋은 프로폴리스 등을 판매한다. 보드카의 일종인 슈납스(Schnaps)에 꿀을 섞어 만든 술도 인기가



주소 Mestni Trg 7, 1000 Ljubljana 전화 +386(0)4-04-77-473 운영시간 09:00~20:00 가격 아카시아 꿀 270g 6.1유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1.5mL 4.5유로 홈페이지 <https://honeyhouse.si>



**꿀 피부의 비법** 드보레즈 트레브니크 Dvorec Trebnik

입구에 들어서자 향기로운 허브 향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어준다. 각종 허브로 만든 페이스 용품을 비롯해 보디와 헤어 제품, 티, 배게 등을 판매한다. 국화과의 메리골드, 캐모마일, 라벤더 등으로 만든 천연 핸드크림은 5유로 안팎으로 선물하기 좋다. 매장 한쪽에선 나에게 맞는 허브 향과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스트 공간을 마련, 굳이 구입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다.



주소 Mestni Trg 2, 1000 Ljubljana 운영시간 월~금요일 10:00~20:00, 토요일 10:00~14:00 홈페이지 [www.trebnik.com](http://www.trebnik.com)

# 요제 플레츠니크의 건축물을 만나다

1895년 슬로베니아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했다. 류블라나 건물 대부분이 무너졌고, 폐허가 된 자리에 건축가 요제 플레츠니크가 류블라나의 주요 건물을 재건했다. 19세기 말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이 류블라나에 많은 것도 이 때문. 도시 곳곳이 요제 플레츠니크의 작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요제 플레츠니크** Jože Plečnik (1872-1957)  
현대 건축의 거장 오토 바그너(Otto Wagner)의 수석 제자이자 '슬로베니아의 가우디'라 불리는 요제 플레츠니크(Jože Plečnik). 슬로베니아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건축가로, 슬로베니아 화폐에도 새겨져 있다. 류블라나 국립대학 도서관, 류블라나 요지, 류블라나차 강둑 등을 건설, 슬로베니아 건축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2012년 1월 23일엔 그의 탄생 140주년을 맞아 트리플 다리가 구글 로고로 사용되기도 했다.



### 운치 있는 야외극장 크리잔케 Križanke

1945년까지 수도원으로 사용되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정부가 몰수했다. 1950년대 요제 플레츠니크에 의해 운치 있는 공연장으로 변신, 프랑스 혁명 광장(Trg francoske revolucije)에 위치해 있다. 벽면을 스킨라피토(Sgraffito) 기법으로 단장한 것이 특징. 여름 축제가 열릴 때면 야외 중정에서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로마 경기장을 닮은 야외극장에선 클래식과 오페라, 재즈, 록 콘서트 등 트렌디한 공연이 마련된다. 바로크 스타일의 크리잔케 교회를 비롯해 기사의 홀(Knight's Hall), 로마 시대의 벽 일부도 볼 수 있다.

주소 Trg Francoske Revolucije 1, Ljubljana 1000, Slovenia



### 요제 플레츠니크 건축의 백미

#### 국립 & 대학 도서관 National & University Library

류블라나 대학 본관 건물을 지나 베고바 거리(Vegova Ulica)를 따라 걷다 보면, 웅장한 붉은색 벽돌 건물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로크 궁전이 1895년 대지진으로 무너지면서 1936년 도서관으로 재건된 것. 건축 전체가 슬로베니아산 재료로 지어졌고, 돌출된 창문은 책을 펴놓은 형상을 하고 있다. 입구를 지나 검은 대리석 기둥이 있는 어두컴컴한 계단을 따라 오르면, 햇살이 비추는 독서실이 나온다. 무지에서 읽을 알아가는 과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소 Turjaška Ulica 1, 1000 Ljubljana Slovenia 전화 +386-1-200-11-10

### 구시가와 신시가를 잇는 트리플 다리 트로모스토브예 Tromostovje

프레세렌 광장에서 세 갈래로 뻗어 있는 트리플 다리는 요제 플레츠니크의 대표작. 1280년 처음 목조다리로 축조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춘 것은 1982년. 당시 중부 유럽과 발칸을 연결하는 통로로, 많은 상인이 몰리면서 통행이 어려워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제 플레츠니크는 1932년 보행자 전용 다리 2개를 추가로 건설했다. 본래의 다리는 차도로, 양옆에 새로 지은 다리는 인도로 사용된다. 다리 아래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류블라니차 강과 이어진다. 용의 다리 방향으로 걷다 보면, 현지인들이 직접 만든 식료품을 파는 시장을 만날 수 있다.



### 류블라나 오픈 마켓

#### 플레츠니코베 아르카데 Plečnikove Arkede

'용의 다리' 옆으로 강가를 따라 길게 늘어선 주랑이 보인다. 플레츠니크가 설계한 아케이드가 그것. 이곳엔 레스토랑과 베이커리가 자리하고, 노점에선 과일과 채소 등 각종 식료품과 전통 수공예품을 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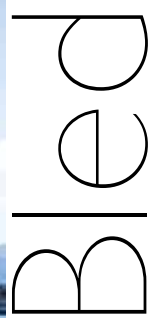
주소 Adamič-Lundrovo Nabrežje, Ljubljana 1000, Slovenia

### 나폴레옹을 기린다

#### 프랑스 혁명 광장 Trg Francoske Revolucije

슬로베니아에 나폴레옹 기념비라니! 프랑스 영토 외에 나폴레옹 기념비가 세워진 유일한 곳이다. 1364년부터 1918년까지 오스트리아의 지배 아래 있던 류블라나는 1809년부터 109년 동안 나폴레옹의 통치를 받았다. 그는 슬로베니아인을 존중해 자국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찾아가는 법 류블라나 대학 본관을 지나 베고바 거리(Vegova Ulica) 끝 자락에 위치



# 블레드

아름답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알프스 만년설이 흘러내려 생긴 투명한 빙하호가 에메랄드빛을 뽐내며 햇살에 반짝인다. 그 가운데 덩그러니 떠 있는 블레드 섬은 슬로베니아의 유일한 섬이다. 섬 안에 불쑥 솟은 성당에선 청아한 종소리와 함께 로맨틱한 결혼식이 열리고, 호수 주변 잔디밭은 일광욕을 즐기는 슬로베니아인들로 북적인다.

###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 블레드 성 Blejski Grad

호숫가 100m 절벽 위에 우뚝 서 있는 요새. 1004년 독일 황제 헨리 2세가 건축한 성으로, 중세 시대에 탑이 추가로 지어졌다. 한때 유고슬라비아 왕족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성 꼭대기에서 바라본 투명한 블레드 호수는 햇빛에 반사돼 아름답게 빛나고, 블레드 섬 안의 성당은 역시 속 그림처럼 작고 귀엽다. 성 난간에 서면, 울리안 알프스와 카라반케 산맥의 웅장한 봉우리가 숨 막히는 비경을 선사한다. 성 내부는 블레드 지역에서 출토된 갑옷이나 칼 등을 전시하는 박물관과 바로크 양식의 예배당, 레스토랑, 와인러리, 대장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중 16세기에 지어진 예배당은 벽면에 그려진 프레스코화가 볼만하다. 야외 테라스에 앉아 호수를 바라보며 식사를 즐겨도 근사하다.

주소 4260 Bled, Slovenia 전화 +386-4-57-29-782 운영시간 9월 16일-10월 31일 08:00-20:00, 11-3월 08:00-18:00, 4월 1일-6월 14일 08:00-20:00, 6월 15일-9월 15일 08:00-21:00 입장료 성인 9유로, 학생 7유로, 어린이 4.5유로 홈페이지 www.blejski-grad.si



### 결혼하고 싶은 로맨틱 플레이스 성모 승천 성당 Cerkev Marijinega vnebovzeta

블레드 호수 위에 동등 떠 있는 블레드 섬 안에 1000년도 넘는 성당이 있다. 과거 신도들은 밤에 나룻배를 타고 와 뜬눈으로 지새우다 새벽 미사를 보고 돌아갔다고 한다. 유럽인들이 결혼식을 올리고 싶은 10대 성당 중 하나로 꼽는 곳으로 주말마다 결혼식이 열린다. 99개의 돌계단이 성당까지 이어져 있는데, 신랑이 신부를 안고 이 계단을 올라가면 백년해로한다는 전설이 있다. 이때 신부는 절대 말을 해선 안 된다고. 바로크 양식의 성당 안엔 1866년에 만들어진 소원의 종이 있다. 침탑 끝에 매달린 밧줄을 세계 잡아당기면, 청아한 종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진다. 종을 3번 울리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전통 나룻배 '플레트나(Pletna)'를 타면 블레드 섬까지 10분 만에 도착한다. 젊은 뱃사공이 직접 노를 저어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데, 흥이 나면 노래도 감미롭게 불러준다. 나루터엔 귀여운 백조 커플이 살고 있다. 백조의 발이 흰치 보일 정도로 물이 맑고 깨끗하다.



찾아가는 법 블레드 나루터에서 블레드 섬 안으로 들어가면 된다. 20여 분 소요. 가격 소원의 종 7유로.



### 티토의 은밀한 별장 호텔 빌라 블레드 Hotel Vila Bled

옛 유고슬라비아 대통령 요시프 브로즈 티토(Josip Broz Tito)의 개인 별장을 2004년 호텔로 개조했다. 대통령이 사용한 침실과 집무실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이곳에서 바라본 블레드 섬은 한 폭의 수채화를 연상케 한다. 북한의 고 김일성 주석도 블레드 호수 풍광에 반해 정상회담이 끝난 후 2주나 더 머물렀다고.

주소 Ljubljanska cesta 12, 4260 Bled 전화 +386-4-576-81-70 홈페이지 www.bled-hotel.com

# 피란

# Piran

드라마 <더 마이 프렌즈>에서 등장한 항구도시. 눈앞에 아드리아 해가 펼쳐지고, 좌우로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 땅이 어깨를 나란히 한다. 15세기 베네치아 고딕 양식의 붉은 지붕과 오밀조밀 모여 있는 중세 유적, 좁은 골목길이 베네치아를 떠올리게 한다. 거리 곳곳에 주세페 타르티니의 동상이 보이는데, 아름다운 바이올린 선율이 귓가를 맴도는 듯하다.



## 타르티니 광장의 랜드마크 시청사 Town Hall

슬로베니아 국기가 걸린 백색 건물. 13세기 베네치아 사람들이 로마 고딕 양식으로 지은 것으로, 합스부르크 지배 시절인 1870년대에 르네상스 양식으로 개축됐다. 정면엔 베네치아의 수호성인인 '날개 달린 사자' 조형물이 포호하며 서 있다. 합스부르크 지배에도 온전히 형태를 유지했다는 게 신기할 따름. 사자가 앞밭로 책을 지그시 누르고 있는데, 책장을 편 상태면 나라가 평화로운 시기를 상징하고, 책이 닫혀 있으면 전쟁 중임을 의미한다. 1층엔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다.

주소 Tartinijev trg 2, 6330 Piran, Pirano, Slove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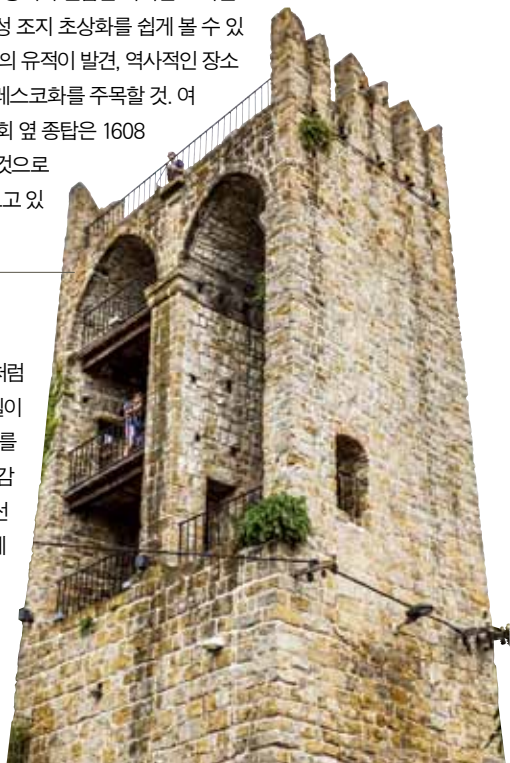
## 피란에서 가장 높은 곳 성 조지 대성당 župnijska cerkev sv. Jurija v Piranu

항구를 뒤로하고 성벽이 있는, 47m 높이의 언덕을 오르면 피란에서 가장 큰 성당이 나온다. 바로 1344년 피란의 수호성인인 성 조지를 기리며 세운 '성 조지 대성당'.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이 결합된 독특한 스타일로 1637년에 재건됐다. 피란 곳곳에서 파는 기념품에선 갑옷 입은 성 조지 초상화를 쉽게 볼 수 있다. 본당에선 고대 로마와 중세 초기, 로마네스크 양식, 고딕 양식의 유적이 발견, 역사적인 장소로 가치가 높다. 1737년에 만든 대리석 제단과 천장에 그려진 프레스코화를 주목할 것. 어느 성당과 다르게 세례를 받은 자만이 본당에 들어갈 수 있다. 교회 옆 종탑은 1608년에 완공, 베네치아에 있는 산마르코 광장의 붉은 종탑을 본뜬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탑 꼭대기엔 대천사 미카엘 동상이 마을을 굽어보고 있다. 종은 오후 2시 정각에 울린다. 주소 Adamiceva ulica, Piran, Slovenia

## 16세기의 흔적을 찾아서 성벽 Mestno Obzidje

1470년부터 1534년 사이에 쌓은 것으로 초기엔 도시 전체를 요새처럼 든든히 감싼 형태였다. 합스부르크 지배 당시 대부분 파괴돼 현재 길이 200m의 성벽과 성문 7개만 남아 있다. 성벽 꼭대기에 오르면, 바다를 향해 삼각형으로 뿔뿔 튀어나온 반도, 드넓은 아드리아 해를 훑어볼 수 있다. 날이 좋으면 오른쪽에 이탈리아, 왼쪽에 크로아티아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피란에서 파는 그림엽서의 배경은 심중팔구 성벽에서 내려다본 아드리아 해다.

찾아가는 법 성 조지 대성당에서 동쪽으로 올라가면 옛 성벽이 나온다. 입장료 1유로



## 성화 보는 재미에 꼭 빠지다 성 프란시스 교회 Cerkev Sv. Frančiška

과거 묘지 자리에 1301년 교회와 설립, 프란체스코 수도원 옆에 있다. 뛰어난 건축미를 자랑하는 이탈리아 롬바르디아 스타일로 지은 성 프란시스 교회는 19세기 들어서면서 현재의 모습을 완성했다. 특히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운 성화로 유명하다. 17~18세기에 그려진 회화로, 최후의 만찬, 성 막달레나, 성 세례요한, 성 베드로, 성 바울과 사마리아 여인의 초상화 등 성서 속 인물을 세밀하게 그렸다. 가장 유명한 성화는 <Mary with all the Saints>. 1518년 빅토르 카르파치오(Victore Carpaccio)가 그린 그림으로, 1940년 이탈리아 에디쿨라(Aedicula)에서 들여왔다. 예배당에서 경건하게 시간을 보냈다면, 회랑으로 둘러싸인 아트리움이 있는 수도원으로 발길을 옮겨보자. 침묵 수행을 하며 회랑을 거니는 수도사, 햇살 쏟아지는 아트리움은 꿈꾸던 유럽 성당의 모습이다. 해안 지역 중 최고의 아트리움 디자인을 자랑하는 이곳은 우아하게 디자인된 아치형 문과 처마에 장식된 섬세한 조각이 일품이다. 500년 이상 된 나무 뿌리를 가공해 만든 괴상망측한 의자도 볼거리.

찾아가는 법 성 조지 대성당에서 성벽 방면으로 걸어서 5분 거리 전화 +386-5-673-34-40



## 타르티니가 나고 자란 생가 타르티니 하우스 Tartini's House

슬로베니아가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주세페 타르티니가 태어난 생가. 타르티니 광장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로, 현수막이 걸려 있지 않았다면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고 초라하다. 1384년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후 네오클래식 스타일로 리노베이션을 거쳐 1991년 레몬옐로 컬러로 페인팅을 마쳤다. 현재 1층은 카페, 2층은 타르티니 바이올린을 전시하는 뮤지엄으로 사용되고 있다.



## 주세페 타르티니

Giuseppe Tartini (1692-1770)

바로크 시대의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슬로베니아 피란(당시 베네치아공화국 이스트리아 반도)에서 태어난 그는 독학으로 바이올린을 익혔고, 100곡이 넘는 바이올린 소나타를 작곡했다. 그중 1749년 작곡한 바이올린 소나타 G단조 <악마의 트릴>이 그의 대표작. 새로운 주법을 연구하던 중 악마가 소나타를 연주하는 꿈을 꾸었다고. 잠에서 깨어나 정신없이 악보에 기록했는데, 그것이 바로 <악마의 트릴>이다.

## 피란에선

### 주차도 문제없어요!

시내에 있는 주차장은 거주자나 숙박객을 위한 것. 렌터카로 당일치기 여행 중이라면 공영 주차장 이용해야 한다. 회색 콘크리트 빌딩처럼 생긴 공영 주차장은 무인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출차 시 총별로 설치된 자동 요금 계산기에 주차증을 넣어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면 된다. 북작거리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져 있지만, 주차 후 해안가를 산책하며 걷는 재미가 있다.

주소 Fornace 23, 6330 Piran, Pirano, Slovenia



## 사랑하는 여인을 위한 통 큰 선물 베네치안 하우스 Venetian House

타르티니 광장에 자리한 베네치아풍 저택. 오랫동안 베네치아공화국의 지배를 받아 도시 전체가 이탈리아 색채가 짙다. 파스텔 톤 건물들 사이에서 특히 사랑스러운 핑크빛 외관이 눈에 띄는데, 1450년 베네치아의 부유한 상인이 피란 여인에게 선물한 집이다. 무억업으로 큰돈을 번 상인은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게 됐고, 피란에 들 때마다 그녀에게 선물을 주곤 했다. 피란 사람들은 둘의 관계에 대해 수군거렸고, 보다 못한 남자는 항구 근처에 그녀를 위한 집을 지어 선물했다. 2층 사자상 아래엔 'Lass a Pur Dir'라고 적혀 있는데, '떠들 테면 떠들어라'는 라틴어다. 주소 Tartinijev trg 4



# 마리보르

마리보르 사람들이 마시는 공기 중 0.5%는 알코올이란 우스갯소리가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와인 셀러를 보유하고 있다. 니어는 정도 수급이 가기도 한다. '슬로베니아 제2의 도시' '2012년 유럽의 문화 수도'라는 쟁쟁한 타이틀보다 유구한 와인 도시라는 점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Mari**bo**or



평화로운 메인 광장 글라브니 광장 Glavni Trg

붉은 지붕의 그림 같은 집들, 그 사이사이에 자리한 한적한 노천카페, 역사 깊은 기념비. 마리보르 시내 중심에 있는 메인 광장이다. 광장 중앙에 있는 시청(Rathaus) 건물이 유독 눈에 띈다. 건물 중앙에 있어야 할 종탑이 오른쪽으로 살짝 치우쳐 있는데, 시 의회가 돈을 주지 않자 건축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이라고. 1681년 흑사병 퇴치에 감사하기 위해 세운 '페스트 기념주(Pestsauale)'가 오래도록 발길을 붙든다.

주소 Poštna ulica, 2000 Maribor, Slovenia



전쟁 영웅을 기리다 스보보데 광장 Svobode Trg

옛 성벽 옆에 붙어 있는 광장. 으레 광장에 있어야 할 그 흔한 벤치도, 군것질 거리도 보이지 않아 다소 삭막해 보인다. 슬로베니아어로 '자유'란 뜻의 스보보데 광장은 자유를 갈구하는 이들의 무덤 같은 곳이다. 지구본 모양의 대규모 조형물이 눈길을 끄는데,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희생당한 이들을 기리는 기념비다. 가까이서 올려다보면, 흑백 초상화가 어렵듯이 보인다. 광장 한쪽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셀러인 '비나그(Vinag)'도 있다. 찾아가는 법 프란시스코 교회에서 걸어서 1분 거리



##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 히사스타레 트레테

평범한 와인 하우스처럼 보이지만, 440년 이상 된 포도나무가 건물 외벽에서 자라고 있다. 198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포도나무로 기네스 북에 올랐다. 매년 10월 포도를 수확, 한 해에 불과 20~30L밖에 되지 않는 와인을 생산하고 있다. 한 방울 한 방울 귀하게 생산된 와인은 마리보르 시



정만 마실 수 있다니, 전신된 와인을 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한다. 이곳은 한 때 관리가 되지 않고 버려져 집시들이 살고 했다. 내부로 들어서면, 마리보르 와인에 대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매년 선보이는 '마리보르 와인 여왕'에 대한 소개부터 포도나무의 역사, 지역별 와인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 전시실 바닥은 건축가 이고르 오레시치(Igor Orešič)가 제작한 슬로베니아 최대의 모자이크 작품이다. 와인 도시 마리보르의 역사를 담고 있는데, 가우디의 타일 모자이크 작품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화려하다. 와인 시음도 가능하다.

주소 Vojšniški trg 8, 2000 Maribor, Slovenia 전화 +386-2-251-51-00 운영시간 09:00-20:00 홈페이지 www.maribor-pohorje.si



## 드라바 강을 가로지르는 붉은 철교 스타리 모스트

와인 하우스 바로 앞에 있는 다리. 1913년 건축가 오이겐(Eugen Fassbender)에 의해 완공, '오래된 다리'란 뜻을 갖고 있다. 철교 아래로 오스트리아 도나우 강의 지류인 드라바(Drava) 강이 흐른다. 드라바 강은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폭이 넓은 강으로 알려져 있다. 포도나무가 440년 넘게 견재할 수 있었던 건 드라바 강이 결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다. 1941년 아돌프 히틀러가 스타리 다리 위에서 사진을 찍으면서 알려지기 시작했다. 주소 Glavni Most, 2000 Maribor, Slovenia

## 마리보르의 랜드마크 프란시스코 교회

Franciscan Church

12세기에 세워진 수도원 자리에 1892년 빈 건축가 리처드 조단(Richard Jordan)이 처음 건축, 1900년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됐다. 쌍둥이처럼 생긴 뾰족한 첨탑과 붉은색 벽돌로 단장한 외관은 한눈에 담기 어려울 정도로 웅장하다. 교회 정면에서 바라보면, 첨탑의 시계와 작은 창문까지도 완벽한 좌우 대칭을 이룬다. 교회 앞에 인포메이션 센터가 있다.

주소 Ulica škofa Maksimilijana Držečnika 7, 2000 Maribor, Slovenia 전화 +386-2-228-51-10 운영시간 09:00-19:00



## 허름하지만 역사 깊은 게토

유대인 지구 Jewish Street

색색의 감각적인 그래피티가 그려진 골목길을 지나면, 뜬금없이 유대인 거주지인 '게토(Ghetto)'가 나온다. 중세 이후 유럽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격리하기 위해 형성된 것으로, 프라하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유대인 지구다. 14세기에 지어진 마리보르 유대인 지구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유대인 회당인 시나고그(Synagogue)로 유명하다. 1429년 설립된 시나고그는 1501년 가톨릭교회로 바뀌었고, 2011년 유대인 관련 박물관이 됐다. 주변엔 유대인 공동묘지와 랍비 거주지, 탈무드 학교 등도 있다. 드라바 강가에 붙어 있는 오각형의 워터 타워(Water Tower)도 볼만하다. 1555년 마리보르 남쪽 성벽을 강화하고, 도시를 방어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것. 1층은 현재 카페로 활용하고 있다. 주소 Židovska ulica 4, 2000 Maribor, Slovenia



## 마리보르 최고의 맛집 로즈마린

Rozmarin

2014년부터 3년 연속 프랑스 미식 매거진 <고미요(Gault & Millau)>가 선정한 최고의 레스토랑. 음식은 물론 소소한 식기에도 로즈마리 캐리커가 그려져 있다. 유리로 뒤덮인 트랜디한 외관과 달리 음식은 푸근한 슬로베니아 전통 푸드를 선보인다. 슬로베니아 파스타 '푸지(Fuzi)'는 최고급 식자재 '이스트라산 송로버섯(Istrian Truffle)'이 듬뿍 뿌려져 나오는데, 독특한 향미가 입맛을 사로잡는다. 와인과 함께 애프터디저로 즐기기에 좋은 '비프 타르타르'는 빵 위에 얹어 먹으면 절로 행복한 미소가 지어진다. 1층은 캐주얼한 레스토랑, 지하는 분위기 있는 와인 바와 와인 저장고로 이루어져 있다. 와인도 판매한다.

주소 Gosposka ulica 8, 2000 Maribor, Slovenia 전화 +386-2-234-31-80 운영시간 월~목요일 08:00-24:00, 금·토요일 08:00-02:00 일요일 휴무 홈페이지 www.rozmarin.s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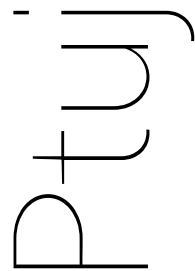
# Goriska Brda

## 고리시카브르다

슬로베니아 서쪽 끝 고리시카브르다를 지나자 휴대폰에 이탈리아 전파가 잡힌다. 이탈리아 접경 지역이자 슬로베니아의 유명 와인 산지로, 언덕마다 녹색 융단을 깔아놓은 듯 포도나무가 뻗뻗하다. 깊고 진한 슬로베니아 와인 한 잔에 기분까지 향긋하게 피어오른다.



## 프투이



아름다운 전설이 흐를 것 같은 고성과 고딕 양식의 건축물, 고즈넉한 골목길, 세월에 깎이고 쓸린 돌길. 마리보르에서 서쪽으로 25km를 달려 도착한 프투이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다. 석기시대부터 사람이 살았고, 기원전 1세기로 마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다.

### 고대 도시의 역사를 담다

프투이 성 Ptuj castle

프투이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한 3층 높이의 성. 박물관과 기념품숍, 레스토랑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투이 성이 자리한 언덕은 고대 로마 시대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고, 지리적 위치는 중세 시대 영주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했다. 프투이 성에서 마을을 바라보면 붉은 지붕의 건물들 사이로 드라바강이 아득하게 펼쳐진다. 과거 배를 타고 적이 쳐들어오는 모습도 한눈에 보였으리라. 9세기 처음 성을 짓기 시작해 12세기 초엔 잘츠부르크 대교구의 소유였다. 현재 슬로베니아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인기 있는 슬로베니아 박물관 중 하나다.

가장 아름다운 전시실로 알려진 1층엔 16~19세기에 제작된 가구와 회화, 태피스트리 등이 전시되어 있다. 2층에선 슬로베니아 전통 의상과 가장무도회 피겨를 볼 수 있다. 전 세계 온갖 악기를 모아놓은 지하 전시관도 보는 재미가 쏠쏠하다.

주소 Na Gradu 1, 2250 Ptuj 전화 +386-2-748-03-60 운영시간 09:00-18:00 입장료 성인 5유로, 어린이 3유로 홈페이지 www.pmpo.si



### 프투이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성 조지 성당 The Parish church of St. George

12세기에 설립, 15세기 고딕 스타일로 재건축됐다. 르네상스와 바로크 양식의 묘비가 바닥에 나뒹굴고 있는데, 군대군데 부식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배당에 들어서면, 왼편에 프투이의 수호성인인 성 조지(St. George) 조각상이 놓여 있다. 프투이 성에 있는 성 조지 조각상이 진품이라고. 내부 그림은 13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사이에 그려진 것.

주소 Slovenski trg, 2250 Ptuj 전화 +386-2-748-19-70 홈페이지 www.prostija-ptuj.si



### 전통 탈 축제, 쿠렌토바니예를 아시나요?

올해 56주년을 맞이한 쿠렌토바니예(Kurentovanje)는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축제 중 하나다. 매년 2월이면 여행객 10만여 명이 축제를 보기 위해 프투이를 찾는다.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리는 입춘 축제로, 약 열흘간 펼쳐진다.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마스크 퍼레이드. 털로 덮인 '쿠렌트(Kurent)'를 머리에 쓰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는데, 나무 막대기와 벨을 흔들며 악령을 쫓아낸다. 벨 소리가 어찌나 큰지 가까이 있으면 귀가 먹먹할 정도다.

### 아름답고도 참혹한 역사

오르페우스 기념비 Orpheus Monument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 기념비. 높이 5m의 백색 대리석 '오르페우스 기념비'가 바로 그것. 2세기 프투이 시의 마르쿠스 발레리우스 베루스 시장을 기념하기 위해 만든 무덤 표상이다. 중세 시대엔 사형수의 손과 머리를 묶어놓은 무서운 형틀로 사용됐다. 기념비 하단에 구멍 3개가 있는데, 당시 참혹했던 사형 제도를 증언하고 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 신화 속 오르페우스(Orphers)의 전설이 기념비 중앙에 부조로 새겨져 있다. 죽은 아내 에우리디케를 찾기 위해 저승까지 내려간 오르페우스는 저승의 왕을 감동시킬 만큼 하프 연주 실력이 뛰어났다. 결국 에우리디케를 데려오는 데 성공한다. 오랜 세월이 부조 장식이 많이 훼손됐지만, 감동을 느끼기엔 부족함이 없다.

찾아가는 법 타운 타워(Town Tower) 바로 앞에 위치.



### 역사를 바꾼 슬로베니아 와인너리 브야나 Bjana

미란 & 페트라 시르크(Miran & Petra Sirk) 부부가 운영하는 와인너리. 4대째 이어오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0ha의 와인 밭을 구입,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와인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슬로베니아 최초로 스파클링 와인을 생산, 올해로 25주년을 맞았다. 8월 중순에 가장 먼저 청포도를 수확하는데, 신맛이 강하다. 기온이 낮고 습해야 포도가 잘 자라는데, 빌야나(Bijana) 지역은 이탈리아 북부처럼 건조하고 더운 편이다. 스파클링 와인 재배에 최악의 조건에도 최고의 와인을 생산, 디켄터 월드 와인 어워드에서 3년 연속 '최고의 스파클링 상'을 받았다. 브야나는 Brut, Brut Rose, Cuvee Prestige, Brut Zero 등 화이트 와인 4종과 레드 와인 1종을 생산하고 있다. 와인 구입뿐 아니라 테이스팅도 가능하다.

주소 Biljana 38, 5212 Dobrovo V Brdih, Slovenia 전화 +386-5-395-92-30 운영시간 09:00-20:00 가격 와인 테이스팅 4명 이상 20유로부터 홈페이지 www.bjana.si



### 전쟁이 지나간 평화로운 동네 코바리드 Kobarid

류블랴나에서 서쪽으로 115km 떨어진 도시. 코바리드에서 가장 높은 언덕 위에 독특한 성당 건축물이 보인다. 바로 1938년 건축가 지오반니 그레피(Giovanni Greppi)가 지은 '이탈리안스카 코스트니차(Italijanska Kostnica)'. 계단식 구조와 아치형 회랑이 눈길을 끄는데, 멀리서 보면 견고한 요새를 닮았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희생당한 이탈리아 군인들을 기리는 성당으로, 희생자 이름이 벽돌에 한 자 한 자 새겨져 있다. 현지인이 즐겨 찾는 레스토랑 '토플리 발(Topli Val)'도 놓치지 말자. 소차 계곡에서 잡아 올린 싱싱한 물고기 요리를 맛볼 수 있다.

토플리 발 주소 Trg svobode 1, 5222 Kobarid 전화 +386-5-389-93-00



### 옛 모습으로 복원된 마을 슈마르트노 Šmartno

로마 시대부터 마을을 형성, 19세기 군사 지역으로 바뀌면서 상당 부분 훼손됐다. 베네치아공화국과 오스트리아 국경에 맞닿아 있어 과거 지리적 요충지였다. 마을이 어찌나 작은지 20분이면 한 바퀴 돌러볼 수 있다. 집집마다 벽돌이 부서지고, 페인트칠이 벗겨져 있는데, 세월의 더께가 커져가 쌓인 낡은 모습이다. 골목길엔 스마트노의 과거를 보여주는 흑백사진이 걸려 있어 말끔하게 복원된 현재와 당시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다.

주소 Šmartno, 5211



### 세계에서 가장 긴 아치형 다리 솔칸다리 Solkan Bridge

노비고리차 인근에 자리한 길이 219.7m의 아치형 다리. 건축가 루돌프 야우스너르(Rudolf Jausner)와 엔지니어 레오폴드 오르레이(Leopold Örley)의 합동작으로 1906년에 완공됐다. 1916년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오스트리아 군인들이 파괴한 것을 1927년에 재건했다. 다리 위로 이따금씩 기차가 지나고, 발밑으로 에메랄드빛 소차(Soča) 강이 힘차게 흐른다. 주소 5250 Solkan

# 신의 축복, 율리안 알프스를 만나러 가는 길

진정한 슬로베니아인이려면, 트리글라브 산을 1번 이상 올라야 한다는 말이 있다. 슬로베니아에 한 걸음 다가가기 위해 율리안 알프스에 온몸을 맡겼다. 알프스 산맥의 대부분은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에 속해 있고, 온통 험준한 산악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큰 빙하 호수와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 초록빛 빙하 계곡 등을 만날 수 있다.



# Experience Nature



**율리안 알프스의 최고봉 트리글라브 국립공원** Triglav National Park

알프스에 있는 국립공원 중 규모가 가장 크다. 1924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슬로베니아 국기와 50센트 동전에 등장하는 슬로베니아의 상징과도 같다. 해발 2864m의 트리글라브(Triglav)는 해발 2000m 이상의 고봉이 줄줄이 이어진 율리안 알프스(Julijске Alpe)에서도 단연 으뜸이다. 하늘과 맞닿을 듯한 장엄한 위용과 만년설의 신비로운 자태가 단숨에 시선을 빼앗는다. '3개의 봉우리'라는 뜻의 트리글라브는 슬라브 신화에 등장하는 머리 3개 달린 신, 트리글라브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다. 트리글라브 신이 하늘과 땅, 지하를 지배한다고 믿었다.

## 절로 송고해지는 길 브르시치 패스

율리안 알프스 북서부, 해발 1611m에 위치한 브르시치(Vršič) 산. 산자락을 따라 왕복 2차선 도로가 나 있는데, 유럽에서 가장 높은 포장도로로 유명하다. 급경사는 기본, 구불구불 S자 길이 심 없이 이어져 운전 초보자라면 당황하기 쉽다. 트레타 계곡에서 어퍼카르니올라(Upper Carniola) 주까지 이어지는 산길은 경치가 아름다워 산악 자전거를 타는 이도 많다. 도로 건설되기 시작한 건 19세기 초. 1915년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끌려온 러시아 포로들이 군사물자 조달을 위해 건설한 것으로, 일명 '러시아 로드(Ruska Cesta)'로 불린다. 브르시치 산 해발 1129m 지점엔 정교한 건축미가 돋보이는 '러시아 정교회 예배당(Ruska Kapelica)'이 있다. 도로 건설 중 사망한 포로들을 기념하기 위한 곳으로. 얼마 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참석해 '러시아 포로 100주년 추모식'을 열기도 했다.

주소 Vršič, 4280 Kranjska Gora, Slovenia



## 슬로베니아 최대 빙하호 보힌 호수



슬로베니아 서북쪽으로 길게 뻗어 있는 율리안 알프스가 포근히 감싸 안고 있는 도시, 보힌(Bohinj). 율리안 알프스에서 흘러내린 빙하가 모여 그림같이 아름다운 호수를 형성했다. 최장수심 45m, 호수 둘레 12km로, 블레드 호수보다 3배나 큰 거대한 빙하호가 산맥 사이사이를 흐른다. 빙하호엔 물고기 10여 종이 사는데, 물속을 헤엄치는 송사리 떼가 생생히 보일 정도로 물이 투명하고 맑다. 블레드 호수처럼 보힌 호수

에서도 환경 보호를 위해 무동력 배만 다닐 수 있다. 한가롭게 튜브 놀이를 하거나 선댄을 즐기는 이도 많다. 트리글라브 산맥 아래 자리한 보힌 마을은 198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다. 호숫가 옆 암석엔 산양 조각상이 놓여 있는데, 때 묻지 않은 보힌과 어울려져 그 자체로 그림이다. 보힌 사람들은 옛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다. 국립공원의 특성상 함부로 집을 고치거나 환경을 훼손하지 못한다. 차가운 빙하호가 마을을 관통해서 흐르기 때문에 한여름에도 25도를 넘지 않는다고. 여름철엔 더위를 피해 이곳을 찾는 현지인이 많다. 이른 아침 물안개 낀 호수 풍광도 환상적이다.

주소 4265 Bohinjko jezero, Slovenia



## 발길 볼드는 해괴한 벽화 성 요한 성당

보힌 호수 동쪽 끝에 자리한 15세기 고딕 양식의 성당. 18세기 바로크 양식의 종탑이 추가됐다. 외관엔 빛바랜 벽화가 눈길을 끄는데, '여행자의 수호성인'이라 불리는 성 크리스토퍼(St. Christopher)를 담고 있다. 그래서인지 누구든 이곳을 쉽게 지나치지 못한다. 성당 내부는 보힌 지역 예술가들이 그린 벽화들로 빼곡히 장식되어 있다. 이름 모를 지역 작가가 그린 독주를 든 사도 요한의 모습이 특히 인상적. 성당 중앙 회중석(Nave)엔 1520년에 그린 야곱의 이야기가 눈길을 끈다. 벽화는 꿈에 나올까 두려울 정도로 표정이 그로테스크하고 비범하다. 눈을 무섭게 치켜뜨고 날카로운 짐승 이빨을 한 인간의 모습인데, 악마에 가깝게 그려졌다.

주소 Ribčev Laz 4265 Bohinjko jezero, Slovenia



## 눈앞에 다가온 트리글라브 보겔스키센터

율리안 알프스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싶다면, 해발 1922m의 보겔 산(Mt. Vogel)에 오르자. 등산하기 겁이 난다면, 케이블카를 이용할 것. 보겔스키센터는 겨울철 외엔 전망대로 쓰인다. 케이블카를 타고 해발 1535m의 전망대에 오르면, 발아래 빙하의 눈물 같은 보힌 호수와 해발 2864m의 트리글라브 산이 한눈에 잡힌다. 손에 잡힐 듯 가까이 다가온 트리글라브를 마주한 순간 가슴이 벅차오른다. 전망대에서 즐기는 집(Zip)라인도 정신을 놓을 정도로 아찔하다. 외출 하나에 몸을 의지해 300m 정도 미끄러지듯 내려가는데 최고 시속 60km에 달한다. 몸무게 30kg 이하는 탑승 불가다.

주소 Ukanc, 4265 Bohinjko jezero Radovljica, Slovenia 운영시간 08:00~18:00(집라인 10:00~16:00) 요금 성인 14유로, 어린이 9유로, 집라인 성인 15~30유로, 어린이 10~30유로(거리에 따라 달라짐)



### 소녀의 얼굴을 닮은 바위 산 프리소이니크 Prisojnik

율리안 알프스 동쪽에 있는 해발 2547m의 산.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에 속한 산으로, 크란스카고라에서 브르시치 패스를 따라 소차 계곡 방향으로 쪽 가다 보면, 프리소이니크를 만날 수 있다. 여인의 얼굴(Pagan Girl)을 닮은 바위와 구멍 뚫린 창문 바위를 볼 수 있다. 산 정상은 올라도 좋지만, 신비로운 바위 형상을 만나려면 멀리서 산의 자태를 감상해야 한다. 전망 포인트는 'Ajdovska deklica'. 키 큰 침엽수 뒤로 만년설을 인 봉우리가 삐죽 보인다. 멀리서 보면 작은 점 같지만, 태양이 구멍 사이를 비추면 거울처럼 반짝인다.



### 더위를 날리는 청록색 물 소차 밸리 Soča Valley

알프스 만년설이 녹아 흐르는 시원한 소차 계곡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강'이라 불린다. 트리글라브 국립공원에서 시작해 노바고리차(Nova Gorica)를 지나 이탈리아 북동부까지 구불구불 흐르는데, 그 길이만 해도 약 140km에 달한다. 물이 워낙 맑아 계곡 밑바닥까지 훤히 보일 정도. 한여름엔 카약과 보트 등 각종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나무로 연결된 출렁다리도 제법 운치 있다. 지극히 평화로우 보이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엔 65만 명이 사망해 핏물이 흘러내리던 참혹한 현상이었다. 헤밍웨이의 자전적 소설 <무기여 잘 있거라>의 실제 배경이기도 하다. 17일간 지속된 소차 전투를 생생히 그리고 있다.

주소 Soča 5232, Soča, Slovenia



### 완벽한 반영을 만나다 야스나 호수 Lake Jasna

율리안 알프스를 이루는 스피크(Spik), 라조르(Razor), 프리소이니크(Prisojnik) 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최고의 스폿. 호수에 비친 투명한 반영이 불만한데, 만년설을 뒤집어쓴 고봉과 푸른 하늘, 양털 구름이 한 폭의 그림 같다.

주소 Lake Jasna, 4280 Kranjska Gora, Slovenia



##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촬영지를 따라

슬로베니아가 어디 붙어 있는지 모르던 사람들이 드라마 한 편으로 슬로베니아를 워너비 여행지로 꼽았다. 드라마 <디어 마이 프렌즈> 속 연하(조인성)와 완(고현정)이 사랑을 속삭이고 미래를 약속했던 슬로베니아의 곳곳을 소개한다.



### 슬픈 사랑 이야기가 흐른다 프레세렌 광장 Prešernov Trg

류블라나의 상징 프레세렌 광장. 17세기 후반에 세워진 프란체스카 성당(St. Francesca Church) 주변으로 바로크와 아르누보 양식의 건물들이 수를 놓듯 촘촘히 자리해 있다. 1600년 건축된 핑크빛 외관의 프란체스카 성당은 고대 필사본을 소장한 곳으로, 2008년 슬로베니아의 문화 기념물로 지정됐다. 드라마 속 두 주인공, 연하(조인성)와 완(고현정)은 이 성당에서 처음 만났다. 프란체스카 성당에서 오후 6시 정각에 사랑을 고백하면, 영원한 사랑이 이뤄진다는 전설을 듣고, 두 사람은 성당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한다. 급하게 뛰어가다 연하는 그만 차 사고를 당한다. 광장 바닥에 주저앉아 슬픈 눈으로 연하를 바라보던 망연자실한 완의 표정. 차에 치여 고통스러워하는 연하의 모습이 아름다운 프레세렌 광장을 배경으로 그려졌다. 눈앞에서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둘의 이야기는 이 광장의 주인공과 묘하게 닮아 있다. 광장 중앙엔 슬로베니아 국가를 작사한 민족시인 프란체 프레세렌(France Prešeren)의 청동상이 우뚝 서 있다. 동상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노란색 건물 2층에 여인의 흉상이 나온다. 평소 연애 시를 잘 썼던 로맨티스트 프레세렌이 첫눈에 반한 부유층 여인 율리아(Julija)인데, 신분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를 안타깝게 여겨 동상을 서로 마주 보게 만든 것. 그가 죽은 2월 8일은 국가 공휴일로 지정됐다. 류블라나의 모든 길은 프레세렌 광장과 통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를 천천히 둘러보는 것도 흥미롭다. 주소 Prešernov trg, 1000 Ljubljana



### 해안 마을에서 즐거운 한때 타르티니 광장 Tartini Trg

18세기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 주세페 타르티니를 기리기 위해 지은 광장



중앙엔 그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는 청동상이 서 있다. 연하(조인성)와 완(고현정)은 거리 악사가 연주하는 바이올린과 아코디언 선율에 맞춰 춤을 추는 장면이 촬영됐다. 춤을 추는 사람들 틈에서 유독 행복한 미소를 짓는 두 사람. 피란의 베네치아풍 건물들이 배경으로 등장하는데, 이국적인 풍경 덕에 두 눈이 즐겁다.

주소 Tartinijev trg 1, 6330 Piran, Pirano, Slovenia



## 나에게 맞는 슬로베니아 숙소 고르기



### 율리안 알프스를 가슴에 품다

라마다 호텔 & 스위트 Ramada Hotel & Suites

슬로베니아 북서부, 크란스카 고라는 스키로 유명한 도시다. 알프스 산맥의 깎아지른 산자락마다 슬로프가 설치, 세계적인 스키 점프대도 있다. 유리로 설계된 객실 테라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트리글라브 산이 한눈에 잡힌다.

주소 Borovška cesta 93, 4280 Kranjska Gora 전화 +386-4-588-48-20 홈페이지 www.wyndhamhotels.com/ramada/kranjska-gora-slovenia



### 온천과 휴양을 동시에

그랜드 호텔 프리무스 Grand Hotel Primus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푸투이를 대표하는 호텔. 객실 119개를 보유, 로마 제국의 장군,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프리무스(Marcus Antonius Primus)의 이름에서 따왔다. 온천수가 흐르는 워터파크와 올림픽 규격의 수영장은 호텔의 자랑거리.

주소 Pot v Toplice 9, 2251 Ptuj 전화 +386-2-749-45-00



### 슬로베니아 전통 농가에서 잠들다

벨리차 Belica

도시가 아닌 한적한 슬로베니아 농가에서 쉬고 싶다면 벨리차가 정답이다. 눈 돌리는 곳 어디든 와인 밭이 펼쳐져 있고, 새벽마다 성당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세련되지 않지만, 정겨운 인테리어에 눈길이 가고, 농가의 넉넉한 인심도 느낄 수 있다. 호텔 1층엔 슬로베니아 전통 음식을 선보이는 레스토랑이 있다.

주소 Medana 32, 5212 Medana 전화 +386-5-304-21-04



### 도보 여행자에게 최적화된 비즈니스호텔

호텔 센트럴 Hotel Central

류블라나 워킹 투어를 계획한다면, 다운타운에 있는 숙소부터 잡을 것. '호텔 센트럴'은 류블라나의 상징 프레세렌 광장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류블라나 주요 여행지가 속해 있는 구시가지도 20분 내외로 모두 둘러볼 수 있어 도보 여행자에게 최적화된 호텔이다.

주소 Miklošičeva cesta 9, 1000 Ljubljana 전화 +386-1-308-43-00 홈페이지 www.centralhotelljubljana.com



### 사랑을 샘솟게 하는 푸른 바다 피란 등대

수십 대의 요트가 정박해 있는 피란 항을 지나 방파제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알록달록 그림 같은 등대가 나온다. 연하와 완은 피란 해안가에서 로맨틱한 데이트를 즐겼다. 레고 장난감처럼 생긴 빨간색과 녹색 등대가 배경으로 등장하고, 황금빛 해안 풍광이 파노라마로 펼쳐진다. 두 사람은 잔잔하게 파도치는 방파제에 앉아 와인을 마시는데, 피란에 대한 환상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 Slovenian Foods

## 슬로베니아의 건강한 식탁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이웃한 작은 나라 슬로베니아. 오랜 세월 무수한 침략 속에서도 그들만의 독보적인 음식 문화를 꽃피웠다. 소박하지만 푸짐한 슬로베니아의 식탁.



### 문어 촉수 요리 Crispy Galician Octopus Tentacle

문어 다리 하나가 통째 구워 나오는데, 엄청난 비주얼에 놀라고, 쫄깃한 식감에 두 번 놀라게 된다. 문어를 삶은 다음 그릴에 살짝 구워내는데, 부드러운 살구버섯과 바삭한 문어의 식감을 고루 느낄 수 있다. 바질 소스가 해산물 요리에 잘 어울린다.

### 송어구이 Postrv S Prilogo

송어 한 마리가 통째로 구워져 나온다. 민물고기인 송어는 레몬즙을 살짝 뿌리면 생선살이 단단해지고 비릿함까지 완벽하게 잡아준다. 바질 향 가득한 올리브오일에 송어를 찍어 먹으면 더욱 부드러운 맛을 느낄 수 있다. 버터에 볶은 감자와 부드럽게 삶은 시금치가 한 접시에 담겨 나온다.



### 생선 수프 Ribja Juha

한국의 북엇국과 흡사한 생선 수프, 리비아 유하(Ribja Juha). 소고기 수프인 고베야 유하(Goveja Juha)와 함께 한국인 입맛에 잘 맞는 요리다. 오징어와 각종 생선, 양파, 파슬리, 후추 등을 넣고 푹 끓이는데, 한국 사람이라면 시원한 국물 맛에 반해 밥을 말아 먹고 싶어진다.

### 해산물 모듬 요리 Fischplatte

그릴 시푸드들 좋아한다면, 심종팔 구 만족할 만한 요리. 오징어와 새우, 각종 생선, 감자, 시금치 등이 큼직한 접시에 담겨 나온다. 슬로베니아의 해안가 마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흔한 메뉴다.



### 토마토 수프 Paradižnikova Juha

스페인에 가스파초가 있다면, 슬로베니아엔 '파라디즈니코바 유하'가 있다. 슬로베니아에선 더운 여름에 불을 쓸 필요 없는 차가운 토마토 수프를 즐긴다. 토마토의 상큼한 맛과 은은한 정향, 계피 향이 절묘하게 어울린다.



### 멧돼지 필레 Wild Boar Filet

야생 멧돼지 스테이크. 백리향(Thyme), 세이지(Sage) 등 각종 허브로 돼지 특유의 잡냄새를 잡았다. 레드와인 소스가 촉촉이 배어든 스테이크는 보랏빛의 완벽한 비주얼과 담백한 맛으로 침샘을 자극한다.



### 슬로베니아 토종 맥주 유니온 Union & 라쉬코 Laško

슬로베니아 맥주(Pivo)의 양대 산맥. 슬로베니아 남부 지역은 '유니온', 북부는 '라쉬코'를 즐긴다. 1864년에 설립된 유니온은 붉은색 패키지가 특징, 1826년부터 생산된 라쉬코는 산양 로고가 인상적이다. 둘 다 홉 향이 강한 필스너 맥주로, 라쉬코는 쌉쌀한 맛이 강하고, 유니온은 조금 더 부드러운 목 넘김이 편하다.



### 〈슬로베니아 3대 디저트〉



### 부드러운 크림 도넛 트로야네 Trojane

1913년에 문을 연 트로야네는 도넛 하나로 유명해졌다. 행복하게 부푼 도넛 위에 하얀 슈거 파우더가 술술 뿌려져 나오는데, 입가며 웃에 정신없이 문혀가며 먹게 된다. 류블라나와 마리보르를 잇는 A1 고속도로에 위치, 입이 심심한 운전자들이 즐겨 찾는다. 주중엔 5000~8000개, 주말엔 1만 8000개 넘게 팔릴 정도로 인기. 하루에 도넛 2만 2000개를 팔아치운 신기록도 있다.

### 달콤한 만두 스트루클리 덤플링 Strukli Dumpling

메밀이나 밀가루를 반죽해 만든 만두 모양의 디저트. 슬로베니아 가정에서 주로 먹는 간단한 디저트다. 사과와 호두, 양귀비씨, 코티지치즈, 타라곤 등의 소를 가득 넣어 만두처럼 빚는다. 첫맛은 달콤하고, 뒷맛은 담백하고 포만감이 크다.



### 성탄절 선물 같은 롤케이크 Potica

크리스마스에 즐겨 먹는 슬로베니아 전통 디저트. 호두와 양귀비씨, 꿀, 치즈 등을 넣고 만든 롤케이크다. 도자기로 된 포트차 용기에 넣고 빵을 굽는데, 보통 조각내서 먹는다. 표면을 질렀을 때 동그랗게 말린 양귀비씨 색깔이 아름답다.

## + Enjoy Flight

### 슬로베니아로 향하는 최적의 하늘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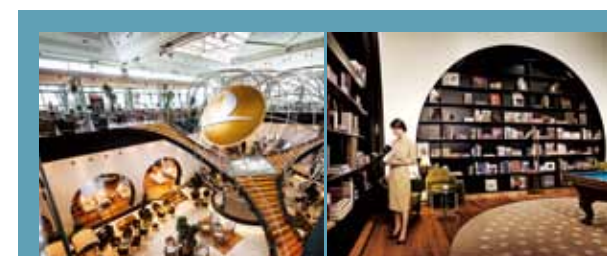


슬로베니아로 가는 직항 노선이 없다. 이스탄불,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을 경유해 가는 게 일반적이다. 터키항공은 이스탄불을 거쳐 류블라나까지 매일 운항. 짧은 경유 시간이 매력적이다. 스타얼라이언스 소속의 4성급 항공사 터키항공은 항공기 335대를 보유, 전 세계 116개국 294개 도시를 운항한다. 전 세계 항공사 중 가장 많은 나라로 운항하는 터키항공은 방대한 항공 네트워크와 5성급 기내 서비스를 제공, 최근 기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사업 규모는 전년 대비 10% 성장, 이용 승객이 5800만 명에서 6170만 명으로 늘어났다. 항공기 평균 기령은 6.8년으로, 유럽 항공사 중 가장 젊은 항공기를 운용하고 있다. 2020년까지 400대 이상의 항공기를 추가할 계획이다. 기내식도 큰 자랑거리. 이코노미 클래스에선 터키식을 비롯해 전 세계 음식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선 출발 전 웰컴 드링크를 제공, 간간하게 고른 식재료로 정성껏 만든 기내식을 도자기 그릇에 담아준다. 홈페이지 www.turkishairlines.com



### 인천-이스탄불 주 11회 운항

노선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운항요일	운항시간	운항기종
인천-이스탄불	TK089	12:05	18:10	목, 금, 토, 일	12시간 05분	B777 / A333
	TK091	23:10	04:30*1	매일	11시간 20분	
이스탄불-인천	TK088	18:35	10:35*1	수, 목, 금, 토	10시간	
	TK090	01:20	16:55	매일	9시간 35분	



### 품격 높은 리프레시 CIP 라운지

장거리 비행 중엔 경유가 더 반가울 때가 있다. 만약적인 비행기에 골짜기 못하고 갈혀 있을 땐 기지개를 켜고 푹 쉬고만 싶다. 이스탄불 아타튀르크 공항의 'CIP 라운지(CIP Lounge)'는 유럽을 경유하는 많은 여행자가 오가는 곳으로, 호텔 못지않은 최고급 시설을 자랑한다. 5900m² 크기의 복층 구조로, 103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스카이트랙스(Skytrax)가 선정한 '2016 World's Best Business Class Lounge Dining'와 '2015 World's Best Business Lounge Dining'을 수상한 바 있다. 터키항공 국제선 비즈니스 클래스 승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엘리트/엘리트 플러스 회원(동반 가족과 손님 포함)과 스타얼라이언스 골드 회원(동반 1인 포함)도 이용 가능하다. 출출하다면 터키식 먹거리로 배를 채워도 좋다. 스페셜 샐러드바, 디저트, 터키 전통 음식 피데와 보렉, 터키식 만두와 튀김 등 각종 요리와 음료가 제공된다. 무료 와이파이, 물론 영화관, 스크린골프, 당구실, 도서관, 기도실, 샤워실, 마사지실, 수면실, 놀이방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췄다.

### 환승 시간이 남는다면, 스톱오버 서비스를 이용하자!



### 무료로 즐기는 이스탄불 시티투어

터키항공 국제선 환승객 중 이스탄불 공항 대기 시간이 6시간 이상일 경우 이스탄불 시내투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입장료는 물론 터키식 식사(1회), 차량, 현지 가이드 등이 포함된다. 투어는 하루 5번, 투어 시작 30분 전까지 아타튀르크 공항 국제선 청사 1층 터키항공 호텔 데스크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간은 08:30~11:00, 09:00~15:00, 09:00~18:00, 12:00~18:00, 16:00~21:00 홈페이지 www.istanbulinhour.com



### 무료 호텔 숙박 서비스

터키항공 국제선 탑승 승객 중 다음 연결편(스케줄상 가장 빠른 항공편 이용 조건)까지 이코노미 10시간 이상, 비즈니스 7시간 이상 체류하는 경우 최대 2박의 호텔 서비스(조식 포함)를 제공한다. 호텔을 이용하려면 이스탄불 공항 내 터키항공 호텔 데스크에서 항공권 및 여권을 제시해야 한다.



# Travel Information

## 슬로베니아 여행 정보

**비자** 관광 목적일 경우 무비자로 90일간 체류할 수 있다.

**시차** 우리나라보다 8시간 느리다. 서머타임 기간인 3월 마지막 주 일요일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까지는 7시간 느리다.

**기후** 유럽 발칸 반도 북서부에 위치한 슬로베니아는 대륙성기후와 지중해성기후를 동시에 띤다. 내륙은 알프스 산맥이 걸쳐진 산악 지형이라 기온 차가 큰 편이다.

**언어** 슬로베니아어.

**통화** 슬로베니아의 화폐단위는 유로(EURO), 1유로=1264원(2016년 9월 15일 기준)

**전화** 슬로베니아의 국가 번호는 386, 류블라나의 지역 번호는 61, 마리보르의 지역 번호는 62.

**전압** 220V, 50Hz를 사용한다.